

죄 전쟁 - The Sin War

어째서 그대가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그대가 이미 끝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가?(요한일서 3:8.)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가? “나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이사야 42:4, 요한복음 8:29, 계시록 12:17.)

그릭 언어로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들” 또는 사자로부터 받은 “좋은 기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군대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을 쳐부수어 승리에 기쁜 소식들이나 또는 나쁜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종사하는 자들을 사자들로 일컬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0년 전에 사단과 투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영혼들이 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하시고 구속의 경륜에 인을 쳤으며, 모든 세대가 사단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이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얻은 것이다. 왕되신 분이므로써 이 승리를 단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그분 백성들을 위함이었으며, 또 그분 왕국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였다. 그분이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인하여 그분의 왕국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여 외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7.)

이것이 동기가 되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독교 세계가 2000년 전에 끝낸 전쟁을 싸우고 있다. 그들이 전쟁에서 왜 실패 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밖에 무엇을 기대 할 수 있는가? 전쟁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쳐부수어 승리하였으나, 어떤 군인들은 그들 자신이 그 상태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므로,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받은 후원이 바닥 날 것이 아닌가? 그들 왕국이 이미 승리하였는데도 그들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스도 왕국이 이미 사단 왕국을 쳐부수어 승리하였으나, 여전히 세상 전체가 그들 자신의 힘에 노력으로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떠돌이 군사들이며, 그들이 승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들 자신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얻었고, 사단은 진 적이다. 그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깃발 아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떠돌이 군사들에게 그분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죄가 박살났다. 그것은 정복된 적이며 끝장난 원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흘리신 피에 결과로 우리가 더럽혀진 죄로부터 해방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였고, 죄와 죽음을 영원히 멸망시켰다. 그들이 인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깨졌으며,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였고, 이 세상 왕자가 (그 당시 사단) 내어 쫓김을 받았다. 어쨌든 사단은 인류보다도 강하다. 그는 그리스도보다는 약하고, 또 그분에 의하여 패배 당하였고, 그가 이 세상에서 지배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 버티고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떠돌이 군사들은 어떤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고, 사단을 뒤쫓으면서 그 자신의 지면 위에서 그와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언급한 것이며, 성소에 희생재물로써, 그분 자신의 희생에 대한 모형에 그림자를 이루었고, 또한 하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끝난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적이 항상 생존할 수

없도록 그분이 박멸하였으므로, “보라” 그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계시록 1:18.)

그의 피로 우리 인류를 다시 샀으므로, 그분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치렀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고린도전서 6:20.)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가르치지만 죄에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이 바로 무슨 뜻인지 그들이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 사람이 - 만들어낸 정의를 내리므로 성경 말씀과는 정 반대가 된다. 죄의 속박에 처해 있음을 감수하기 위하여 고통 받아야 한다!고 그들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주(Yahshua 야쉬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요한복음 8:34.)

사단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와 싸우고자 노력하므로, 인류가 실족하며, 영으로 인도 받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이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간다... 그들이 죄 짓고, 또 그들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명확하게 말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까닭으로 여전히 죄에 종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의에 종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법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 그러한 뜻이 조금도 아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분이 얻은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단이 우리로부터 훔쳐간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직접 마무리 손질을 하여 그들을 연단하고 닦아서 빛나게 하고 회복하여서 그들이 이전보다도 더 더욱 아름답게 된다. 우리에게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주신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성인, 신에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후서 1:4.)

우리에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을 주셨다!(고린도전서 2:16.)

그리스도, 구주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셨다. 우리와 동행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애 하시므로,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서, 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 없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1:13, 유 24, 25.)

자칭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떠돌이 군사들이 된 것은, 구주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모르고 있든지,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자신들의 지나간 경험들을 본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줄곧 소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적에게 굴복하였으므로 우리가 죄를 중지 할 수 없으며 승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본성이 강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항 할 수 있는가?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을 준비하기를 거절한다.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수 없으며, 대 혼란 가운데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승리에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며, 그러나 그리스도 왕께서 그의 충성된 종들을 사랑하므로 그들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표를 받고, 인침 받게 된다, 또한 오직 우리를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9.)

그들이 끝이 이를 때까지 승리에 기쁜 소식들을 듣고 거절하고 거절할 사람들과 함께 섞여있을 것이며, 죄를 그들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행하므로, 또 삭막한 광야가 그들의 왕국의 장소가 되어 그들의 소유지가 되었다. 이것들은 그들 자신들의 본질을 보면서 주장하므로 이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주어진 것을 반대하는 증거다. 그들이 최근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그들이 적에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 자신에 연약함의 깊이를 바라보고, 또 겸손한 말로 주장하기를,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 그들이 왕의 말씀을 짓혀놓고 그들이 보는 눈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사단은 새 왕국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유혹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인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새 왕국에서 강하게 되고, 우리의 기질, 본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고 한다.

야웨께서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만일 그분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지 않는가? 루시퍼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때문인가? 사단이 전능하신 분을 꾸짖고 있는가? 야웨께서 적의 존재를 멸하지 않고 또 적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숨기지 않고도 우리가 적을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없는가?

아니다, 그분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자진해서 그분을 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이 승리하셨으나, 그 복음이 지금까지 설교되지 않았다. 이 기쁜 소식이 아직도 떠돌이 군사들의 귀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가 되며 그들이 왕께서 적을 쫓아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목사 상사들의 말을 믿는다. 참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승리에 기쁜 소식이며, 모든 나라들, 백성들과 방언들에게 설교되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충성된 백성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분의 피를 요구하고 그분의 왕국을 지상 위에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은 육신의 고통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끝낸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4:1.)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증거를 거절하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다. (요한복음 8:28.)

지금 그대에게 이것이 복음인 것을 실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끝난 이 전쟁이 그대의 요지가 된 것을 말하여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대는 사단과 싸움으로 끝까지 실패하여 지켰으므로, 그대가 전쟁에 실증이 났는가? 이것이 그대의 안식이다. 적을 영원히 정복한 왕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향에 가기 위하여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대가 죄 아래로 떨어져서 불결하여진 오점을 그리스도께서 씻기도록 하고, 또 결코 땅 바닥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죄와 싸움을 중단할 때가 되었고, 또 싸우고 있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싸움을 중단하라. 그것을 이미 승리하였다. 그대는 본향에 가고 있다.

어떤 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연합할 것이고, 야웨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동료들이 될 것이며, 그분이 승리하신 기별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의 검을 사용하여야 할 때 사용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12.) 다른 군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별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자신들의 무장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의 영적인 무기를 돌려 받고, 야웨의 사랑과 치료받는 진리 둘 다로 가득 채워지거나, 또는 사단의 증오와 독기 있는 격노로 채워질 것은 그들이 결정하여 선택한 후이다.

그들 대부분이 진리가 실제로 관통되면 그대를 채찍질 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그대를 멸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28.) 그들을 반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거나 공격으로 되돌려 주지 않지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것들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천국이 올 때 그들이 사단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 왕이 속이는 자를 멸하기 위하여 이 천년 전에 오셔서 그 사업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또 사자들과 군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글자 그대로 영적인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그분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셨다.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이 언젠가 이 기별을 받아들일 동료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을 것이며, 이 기쁜 소식들을 선포하는 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적대하여 싸울 것이다. 그들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으므로, 야웨께 충성하여 본향에 가고자 추구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은 죄 전쟁을 사랑하므로, 그들의 왕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선택할 것이며, 그와 같이 그들이 아주 빈번히 범죄하여 그에게 떨어졌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그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들의 얼굴에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그들이 실족하였을 때, 고통 대신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들에게 평화스러운 하늘이 몹시 괴로운 곳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 “의” 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지 말고, 또 그 죄가 멀하였을 때, 그대 자신을 확인하라. 그 죄를 그대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멸망당 할 때 그대 자신도 죄와 함께 멸망당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하여 머무적거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왕국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의 검이 그대의 손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확실한 말씀으로부터 그대를 분리하지 않도록 그대 주위에 있는 다른 자들의 싸움에 접하지 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여 모두 받아들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토대로 만들고, 지나간 경험을 돌아보지 말라. 그대가 헛수를 거둬온 죄된 생애나 또는 근래에 실패한 것들까지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능력과 또, 그대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보전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야쉬와(Yahshua) 우리 왕의 약속을 통하여 복음은 승리에 기쁜 소식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25.

야 (Yah 시:68:4)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하기 바라면서, 나의 기도는 우리의 검들을 보좌 아래 내려놓을 그 날에 그대도 그곳에 있기 바란다.

본향을 준비하는 군사.

Luke.

번역자의 말: 이 말씀들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번역되는 대로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한국어 인터넷: www.csda-korea.org 영어 인터넷: www.csda.us